



부안 농어촌공,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원중)는 22일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위치한 딸기하우스 농가에서 직원 30명이 참여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영농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의 요청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참여했다.

농촌일손돕기 뺨만이나나 설날·추석명절 행복충전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수확한 농산물 팔아주기, 고향 사람 기부채 참여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주천면 지사협, 보행보조기 21대 전달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환순, 민간위원장 김영근)는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 21대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주천면 특화사업인 '행복 두배 계좌 찾기'를 통한 정기기부와 연말 이웃돕기 성금 일시기부금으로 추진 하였으며, 찾아가는 1일1가구 소동행정을 통해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였다.

한 어르신은 "보행보조기 덕분에 경로당도 가고 이웃집에도 놀러 갈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농어촌공,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22일, 지역발전 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뜻을 모아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정읍지사는 지난 2개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왔고, 올해에도 이건국 지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채 활성화를 위한 응원의 손길을 더했다.

이건국 지사장은 "정읍의 발전을 염원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체육진흥과, 포도 농가서 일손돕기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지난 21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용지면 봉의리에 있는 한 포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포도 결순 제거 및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는 "더운 날씨에 그 어느 때보다 일손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적기에 도움이 되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가 그린(GREEN)아름다운세상’ 만들기

기전대 유아교육과, '지구를구하는 작은 약속마을' · '우리집 에너지가 달라졌어요!' 총 2개의 작품 수상

전주시기전대학교 유아교육과(지도교수 이정미)는 최근 전주 세병호공원에서 열린 '제2회 초록별대 그림그리기 및 만들기 대회'에서 전주시교육청 금상(김유경, 송은지, 이가은)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려상(김지현, 채리나, 최한비)을 각각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걸스카우트전북연맹 전주지구연합회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공동 후원했으며, 전주 및 완주 지역 17개 어린이집 소속 초록별대 유아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은 유아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탄소중립 교구를 제작,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활용품 놀이 교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참여는 대학-지역사회-유아교육현장이 협력한 실천 중심 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유경, 송은지, 이가은(3학년)이 공동 제작한 '지구를 구하는 작은 약속 마을'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구성한 마을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약속 카드에 직접 환경



보호 실천 내용을 적고 마을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체험형 교구다 태양광 지붕, 자전 거 도로, 약속 나무 등은 환경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화하고, 놀이와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김지현, 채리나, 최한비(3학년) 학생이 제작한 '우리집 에너지가 달라졌어요!'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주제로 이층집 구조의 교구를 구현했다. 불 끄기, 물 절약, 냉장고 문 닫기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방마다 구성됐으며, 유아들이 소품을 직접 배치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율성과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이번 수상을 통해 전주시기전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창의적이고 실천 역량을 갖춘 예비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캠퍼스디자인의 효과를 입증했다.

온은아 교수(전주시지구연합회 회장)는 "예비교사들이 유아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실천적 환경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캠퍼스디자인 활동이 교육적 감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유아현장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청렴 실천 공동 협약 간담회'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22일, 시설팀 주관으로 '청렴 실천 공동 협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장 및 발주 담당자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청렴한 시설공사 정착과 공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사 및 용역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방



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계약 및 감독 과정에서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추영근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자정 노력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 하겠다"며, "교육시설 공사에 있어서도 관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순창군과 '도농교류'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순창군(군수 최영일)과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 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마련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프로그램에 공공기관의 힘을 보태고, 공사 임직원의 알·가정 양립 등 복지증진과 도농교류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임직원 연수 및 워크숍, 순창 투어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협력 △강의실, 숙박 시설 등 시설물 사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상호 기관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 포함됐다.

남회영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의 건강한 에너지를 우리 임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



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순창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군산부설초, 방울토마토 심기로 환경교육 실현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3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심기 생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활동은 화분 준비부터 모종 심기, 물 주기 등 식물 심기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학생들은 식물의 생장 과정을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식물을 처음 심어보서 긴장했지만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것 같다"며 "토마토가 자랄 때까지 꾸준한 관심을 갖고 돌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신철 교장은 "앞으로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환경교육을 꾸준히 운영해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농협,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 운영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은 22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한국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농업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문화강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상재 팀장을 초빙해 "알기 쉬운 생활법률"을 주제로 강의와 개별상담이 이루어졌으며, 문화강화는 레크리에이션 한상준바사의 진행으로 웃음과 유쾌한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동열 조합장은 "농촌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철문 경찰청장, 순창경찰서 방문 · 유공 경찰관 격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22일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를 방문해 실종자 수색 및 지역 치안 유지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원 등 협력 방법 유공 단체장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소재 불명 신상정보 대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에 힘쓰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치안 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춘향장학금 5000만원 기탁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22일 남원시청을 방문해 지역 미래 체육·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전달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오영석 농협 남원시지부장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으며, 기탁금은 남원 지역 유소년 체육예술 특화학교 7개소에 전달되어 체육·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오영석 지부장은 "이번 기탁금이 남원시 체육·예술 인재들의 꿈을 위한 도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풍년제과 하정동커피, 남원 죽향동에 빵 기부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관내 풍년제과 하정동커피(사장 이기연)가 개별 포장된 빵 450개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어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부된 빵은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하정동커피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빵 나눔과 카페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한편 이기연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금동, 금동 지사협과 밀반찬 나눔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22일, 금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인술)와 든든한 찬(사랑의 밀반찬) 지원사업'을 통해 1일 1가구 소동행정을 실천하며, 정성이 담긴 밀반찬을 불뿔이 필요한 20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복지팀은 정성으로 준비한 불고기, 잡채, 갈비찜 등 밀반찬 3종과 이육구 1종을 직접 조리해, 독거노인·한부모·1인 중장년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최인술 위원장은 "직접 찾아뵙며 나눈 한 끼가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